



“희망찬 2008년을 위하여” 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인사들이 올 한해 희망찬 미래를 일궈나기 위해 건배를 하고 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정·관계, 경제계, 언론계, 교육계 등 500여명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위작량기자 jrwi@kwangju.co.kr

## 타르 덩어리 피해 확산 전남 김 양식장 덮쳐

충남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사고로 발생한 타르 덩어리(기름찌꺼기)가 전남도 내 김 양식장에서 발견되는 등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연간 5천200만 송이(전국 생산량의 70%)를 생산해 1천611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전남 김 생산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3일 전남도와 어민들에 따르면 무안군 해제면 도리포 해안 일대의 김 양식장을 확인한 결과, 타르 덩어리가 들어 해안 일대는 물론 김밭 곳곳에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김밭에 기름을 가득 머금은 흡착포까지 걸려있는 모습이 발견됐다. 이번 타르가 유입된 전남지역의 연간 김 양식장 면적은 영광 678.4ha, 무안 1천123ha, 신안 6천257.5ha, 진도 1만960.7ha 등 모두 1만 9천여ha에 이르고 있다. 또한 김 양식장 이외에도 미역, 다시마, 파래, 툯 등 해조류에 미치는 악영향과 모래, 킬 등에 스며든 기름으로 인한 피해는 앞으로 수년 동안 계속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이날 타르 덩어리가 도내 영광·무안·신안·진도 해안에 유입된 뒤 소강 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사리 기간인 오는 7~10일에 타르 덩어리가 다시 유입될 것에 대비, 도와 시·군 지도소 및 해경 경비함을 통해 해상 예찰 및 방제를 실시하는 한편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새 교육정책 광주·전남 ‘불이익’

### ‘3불’ 무너지면 수도권과 무한경쟁 교육 양극화 심화...지역 고사 위기

‘규제에서 자율로’를 주 내용으로 한 새 정부의 교육정책이 광주·전남 교육에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7면> 현재까지 유지돼온 3불(대학보고사·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 금지) 정책이나 교육 기회의 균등, 평준화 원칙 등이 일시에 무너지게 될 경우 그동안 정책적 보호를 받아오던 광주·전남지역 고교들이 수도권 고교들과 무한경쟁을 벌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대학의 농·어촌 특별전형이나 지역균형선발전형으로 상당한 혜택을 보던 지역 학생들도 대학에 진학권이 주어지면 사실상 진학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현실을 감안했을 때, 교육마저도 지방재정에 떠넘겨진다면 약육강식의 시장 논리속에 지역교육이 고사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학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수도권과 지역간, 지역과 지역간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한경쟁 체제가 돌입했을 때 살아남는 지역 대학이 몇이나 되겠느냐는 것이다.

전남대 유종원 기획처장은 “자율권을 주는 것도 좋지만 지역간 편차를 고려하지 않는 방식은 반갑지 않다”며 “단적인 예로 전남대가 지역 경제 사정이 나은 부산대나 경북대보다 뒤쳐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보고에 대해 “자율성이 늘어난다는 점에서는 일단 환영”의 의사를 밝혔지만, 사정이 대학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문제는 재정이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역 교육청의 자율성 확대 역시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뤄질 때 빛을 발한다”며 “특목고 설립 등의 권한이 지역으로 넘어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문제는 돈”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교육부는 ▲수능과 내신 비율의 자율화 ▲수능 과목 축소 ▲보고사·고교등급제 허용 등 이명박 당선인의 선거공약 “3단계 대입 자율화”를 비롯, 교육부 기능 축소와 시·도교육청의 자율성 확대, 특성화 고교 300곳 신설 등을 보고했다. 인수위 측은 이같은 정책으로 공

교육의 내실을 기하겠다고 했지만, 꿈이 곧바로 만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참교육학부모회 최명자 교육부장은 “일부 학교의 환경을 월등하게 만들어 사교육을 줄인다면 나머지 학교들은 어찌겠느냐”고 지적했다. 전교조 전남지부 김유동 정책실장은 “현재 교육제도의 틀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재정지원도가 현저히 낮은 전남의 경우는 특히 우려되는 점이며, 사교육에 지출할 여력이 없는 가정의 학생들은 점차 낙오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 유가 사상 첫 100달러 돌파

국제유가가 올해 첫 거래일인 2일(이하 현지시간) 사상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중질유(WTI)는 장중 한때 지난해 종가 대비 4.02달러가 급등한 배럴당 100달러를 기록, 지난 2004년 9월 배럴당 50달러를 넘어선 이후 3년여 만에 배럴당 100달러 고지에 올라섰다. <관련기사 11면> 100달러 돌파 이후 배럴당 98달러대로 밀리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WTI 가격은 결국 3.64달러, 3.8% 오른 배럴당 99.62달러에 거래를 마감, 증가 기준 사상 최고치도 함께 갈아치웠다. 종전 최고가는 지난해 11월 21일에 기록한 99.29달러였으며 종가 기준 최고가는 지난해 11월 23일의 98.18달러였다. /연합뉴스

금융 소외 720만명  
조기 신용사면 추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소외자 720만명의 채무를 탕감하는 내용의 신용 대사면을 가급적 조기에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3개월간 관련법 개정과 준비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신용 대사면이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장수만 경제1본부와 전문위원은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도 제출하고 준비작업을 거쳐 가능한 빨리 한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구체적 시기는 아직까지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인수위는 방향만 정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정책은 차기 정부가 시행할 것”이라며 “필요한 절차를 감안하면 앞으로 2~3개월은 걸리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신용회복 기금을 설립하는 형태로 대규모 공적자금을 조성, 신용회복 재원으로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금산분리 규제 단계적 완화 홍보처 폐지·기자실 복원

### 인수위 결정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는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가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저신용자, 신용불량자의 신용 회복에 공적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정홍보처가 폐지되는 대신 기자실 복원이 추진되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 시절을 정점으로 반대했던 총리실 기능과 역할도 대통령을 보좌하는 수준으로 대폭 축소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금융감독위원회, 국정홍보처, 국무총리실, 중앙인사위원회, 법제처 등의 업무보고를 각각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종관 인수위 대변인이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이 대변인은 이날 금감위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금산분리 문제와 관련 금감위 측은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했으며 인수위는 산업자본에 대해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며 “인수위는 은

행에 대해 컨소시엄과 펀드 등 다양한 소유형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국정홍보처와 관련, 이 대변인은 “인수위는 기자실 통폐합으로 대변되는 참여정부의 취재선진화 방안에 대해 ‘사실상 언론자유에 역행한다’고 지적하고 원상복구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정홍보처 폐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은 정부 조직개편의 종합적 틀 속에서 검토될 것”이라며 “다만 폐지는 당선자의 공약이었다”고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대변인은 국무총리실 업무 보고 후 “국무총리실의 기능과 역할을 대통령을 보좌하는 수준으로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업무 보고에서 총리실도 “목적 달성이 계획된 후 과감히 정비하겠다”,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향후 5년간 25%(연간 6~8조원) 감축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우일학원 장학 57년 역사상 최대**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제7회 경제정의 기쁨상 수상  
ILDONG 일동제약

## 머리 아플 땐, 캐롤에프를 부르세요~

효과가 빠르다, 위장 부담이 적다 - 캐롤에프의 이부프로펜아르기닌 효과!

체내에 신속히 흡수되어 효과가 빠릅니다  
중추 촉진제인 아르기닌에 의해 이부프로펜의 위장근층수축 촉진력이 효과가 높습니다.

위장보호 작용으로 위장 부담이 적습니다  
아르기닌이 위장은 혈류를 증가시키고 위장의 손상을 줄여 위장 침해를 최소화시켜줍니다.

가려움·발진·어지러움·구입할 수 있습니다  
☎ 1600-022-1010 (www.ildong.com)

감기로 인한 두통 발열  
매달 찾아오는 생리통  
원인도 증상도 다양한 두통

1600-022-1010 (www.ildong.com) | 1600-022-1010 (www.ildong.com)